

전북도-美, 공공외교 중요성 '공감대'

윌리엄 퍼니쉬 주한 미대사관 공공외교 담당관, 전북도 찾아 국제교류센터 추진 사업 연계 협력 확대 협의

주한미대사관 담당관이 29일 공공외교 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첫 행선지로 전북도청을 찾았다.

윌리엄 퍼니쉬 공공외교 프로그램 담당관은 이날 도청을 방문해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면담하고, 이태수 국제협력과장 및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관계자와 간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에서 도와 주한미대사관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전북도와 국제교류센터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 협력을 확대할 것을 협의했다.

전북도는 미국 워싱턴주,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청소년 문화 및 민간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도 기후변화 관련 환경 프로그램, 지자체 중·고등, 대학생 대상으로 미국 외교관의 특별 진로 강연 및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 40주년 기념사업 등을 소개하며, 향후 전북도와 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전북도 테마파크 및 모의유엔회의 등의 연계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내년도는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한미 수교 체결 역사에서 전북도와 역사, 문화 등을 테마로 도민 대상 공공외교사업 추진 및 새로 부임한 주한미대사의 전북도



윌리엄 퍼니쉬 주한미대사관 공공외교 프로그램 담당관(사진 오른쪽)은 2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초청안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 했다. 윌리엄 퍼니쉬 담당관은 "양 국가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국제 교류사업을 지체없이 추진

할과 동시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공공외

교뿐만 아니라 이태 마스터즈, 세계잡버리 등 세계적인 행사가 도에서 개최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 건강 꾸러미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격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도에 농산물 건강 꾸러미 전달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정재호는 2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요원을 격려했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건강 꾸러미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박용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탁된 물품은 코로나19 대응에 고군분투하는 보건소 방역

대응요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장기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산물 건강 꾸러미로 건강을 챙겨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정성에 감사하고, 코로나19 대응요원에게 큰 힘을 보태 줄 것이다"면서 "전북도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 코로나19 종식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해 예산 미집행 1억원 이상 사업 7개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우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1억원 이상 사업이 7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는 이런 내용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 사항 10건과 우수 사례 5건을 각각 집행부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세입·세출과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재무재표, 채권·채무 등의 결산, 성과보고서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시의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2016년 81%, 2017년 80%, 2018년 79%, 2019년 81% 등을 보였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4% 증가한 85%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해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사업만 봤을 때 예산이 전혀 불용처리된 것만 7건이다. 해당 사업은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건립(1억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지원(6억8000만원)', '현역군축지원(1억6000만원)', '북제산업시설행사(1억2000만원)', '동물구급(6억원)', 구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1억원), 인후동 인후육거리부근 도로개설(2억1700만원)' 등이다.

사회혁신센터 등 4곳은 운영과 건물 관리 등의 위탁 협약을 한 번에 체결하고 위탁금 정산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길 결산검사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전주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출연 기관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각종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과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이나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등도 모범적 행정으로 꼽혔다. /김윤식 기자

명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선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부동산 트렌드쇼 2021' 시 2023년 하반기 분양 시작 2024년 용지조성 완료 목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발문)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4월 30일~5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 3층)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트렌드쇼 2021'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는 2023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며, 2024년 용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에 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면적 6.6km²,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변도시에는 ▲새만금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Waterfront),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도시(Smart City), ▲쾌적한 주거 환경과 에너지자립의 친환경도시(Eco Friendly)로 조성된다.

먼저,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또한,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도시기능을 7개의 거

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복지축으로 연결하는 등 공원·복지 비율을 30%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부동산 트렌드쇼 2021'에 참가해 수변도시 개발과 분양계획을 알리고 현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참가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일상이 실현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유망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 따른 대안 절실"

김종식 도의원, "지원기간 연장 미봉책 불과" 대정부 건의안 발의 "공적 자금 투입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 진행" 현대중에 쓴소리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와 재가동 여부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주력기업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발생한 고용시장 약화로, 군산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붕괴됐고,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지난 2018년 4분기 2.1%까지 치솟았으며, 실업률은 2017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군산의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했지만, 특별한 것 없는 미봉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에도 우는 아이 달래는 정책만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전북도민의 인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지역은 200회가 넘는 록 정부와 기업에게 재가동을 촉구했고, 전북도의회도 여덟 차례나 대정부의 건의안을 발의했지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에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김종식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기불황을 발미로 구조조정이라는 악랄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과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강화를 이뤄냈으며, 최근에는 1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독점의 우위와 세계 조선시장 주도를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군산, 거제 등 조선산업 지역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도 민간기업의 일이라 변명하는 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재가동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확정

김우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이상윤 서울지검장은 제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우수(8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82·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88·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천됐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윤(8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추천위는 13명의 심사 대상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천거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해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가 많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추천위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격론이 오갈 것으로도 전망됐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을 후보에서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정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필요할 때는 표결을 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이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 때문인지를 묻자 "그렇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회의의 진행을 했고 결과에 모두가 만족했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뉴스1

농어민 조세감면 혜택 3년 연장

민주 김수홍 의원,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인 대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사후에 대한 인지에 면제 한도 확대(1억원 → 2억5,000만원) 및 인지에 면제, ▲농협합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계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

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농경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유권자 10만보 걷기 챌린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유권자 10만보 걷기 챌린지'를 개최한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10만보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걸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입해 챌린지 기간 중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이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유호상 기자